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데이터테크	파견대학	EPF Engineering school-Paris Cachan
파견기간	3년 1학기	파견국가	프랑스 - 파리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한 EPF Engineering School에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의 정식 입학 신청보다는 본교와의 협정에 따른 교환학생 파견 형식이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본교에서 요구한 교환학생 파견 신청서와 영문 TOEIC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복잡한 지원 절차 없이 현지 대학 측에서 받아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추가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리 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의 한국관 기숙사 등록을 위한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숙사 신청에는 여권 사본, 본교 재학증명서, 재정 보증서 등 다양한 문서가 필요했고, 해당 기관의 요구 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편이라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며 맞춰가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프랑스 학생 비자 신청이었습니다. 제가 파견되는 시기가 1학기(2월~6월)라서 비자를 11월~1월 사이에 신청해야 했는데, 이 시기는 프랑스로 떠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라 예약 잡기부터 매우 어려웠습니다. Campus France 인터뷰, 비자센터 예약, 서류 준비 등 모든 절차가 빠듯하게 이어졌고, 결국 프랑스 출국 이틀 전야야 간신히 비자가 나와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로 해결방법은 없었고 그저 좀만 더 빨리 비자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쳤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했던 만큼, 만약 교환학생을 간다면 비자 신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지 대학 입학 자체보다 그 외 행정적 준비가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는 점도 이번 경험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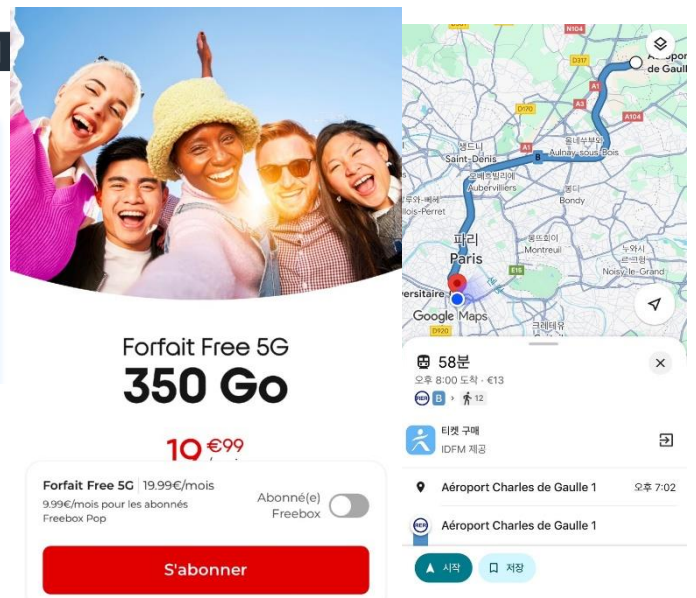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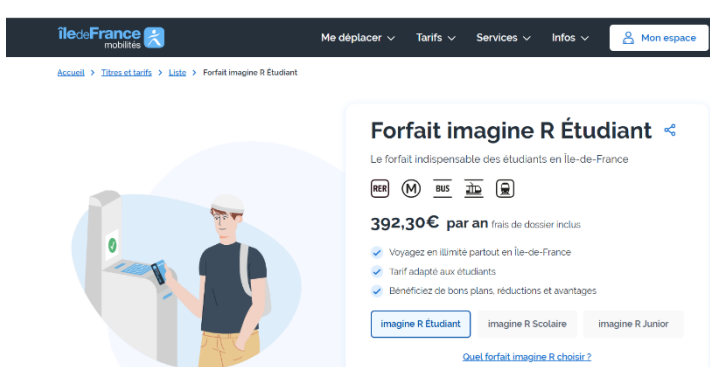
->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교환학생 생활을 원활하게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생활적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학생 비자 발급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선 출국 전 Campus France 등록 → 인터뷰 진행 → 비자센터 예약 → 서류 제출 및 발급의 순서를 따라야 하는데, 특히 제가 출국하는 시기(1월 16일)는 비자 신청자들이 가장 몰리는 성수기라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약이 계속 마감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서류도 한번 갈 때 꼼꼼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시 예약을 잡거나 메일로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대사관이 다시 정확한 서류를 받기 전까지 비자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로 비자는 출국 이틀 전에야 발급되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서류 지연이나 예약 문제에 대비해 훨씬 더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비자 받기까지 대략 거의 2달 걸린 것 같습니다.

항공권은 현지 대학 OT 참가와 현지 적응을 위해 1월 중순으로 예매를 하였고 이 항공권 날짜를 비자 신청시 출국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파리 도착 후에는 샤를드골 공항에서 RER B 열차를 타고 한번에 국제대학촌의 한국관 기숙사 근처 지하철역까지 이동하였습니다. 한국관이 좋은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전기 멀티탭(프랑스는 C형 플러그), 여분의 USB 케이블, 속옷 및 의류, 한국 식품(라면, 고추장 등), 약품(감기약, 지사제) 등을 챙겼고, 현지에서 바로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들이라 가져간 것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한, 통신 관련해서 국내에서 미리 2주치 E심을 구매하였고 덕분에 초기 정착 단계에서 현지 유심을 사기 전까지 구글 지도나 연락 수단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현지유심은 free-mobile을 구입하였는데 월 20유로에 350기가여서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인 Navigo Découverte 카드는 파리 시내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도착 직후 RER B 역 근처 부티크(판매소)에서 바로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학생 할인 받아 1년권을 끊어서 이용하였습니다. 증명사진이 필요하니, 여권 사진을 여러 장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 EPF Engineering School에서의 교환학생 기간 동안, 다양한 전공 수업을 수강하며 경영, 공학, 데이터 분야에 걸친 폭넓은 주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교수님의 프랑스식 영어 발음 때문에 초반에는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발표와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팀 프로젝트나 사례 분석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학생 수는 보통 30명 정도였고, 프랑스 현지 학생들과 외국인 교환학생이 혼합된 구성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수님이 수업하는 방식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강한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oT and Big Data: 사물인터넷 기술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기술적 요소보다는 응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시간마다 MCQ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Accounting: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숫자 계산보다는 개념 이해 중심이었습니다.

Supply Chain: 공급망의 흐름, 물류 최적화, 재고관리 등을 다루었으며, 실제 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저희 팀은 프랑스 대표 잼 회사 브랜드 Bonne Maman 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Corporate Finance: 기업 재무의 핵심 원리와 투자 의사결정, 자본비용 등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익혔고 실제 회계에 있어 중요한 값들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Operational Research: 선형계획법, 최적화 기법 등을 배우며,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엑셀이나 간단한 수식 모델링도 활용되었고 매 수업마다 exercise 활동을 통해 더 쉽게 이해가 가는 수업이었습니다.

Data Analysis & Inferential Statistics: 통계 분석의 기초와 함께, 가설 검정, 회귀분석 등의 기초 통계 기법을 실습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Business Game: 가상 기업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팀 단위로 경영 전략을 설계하고 실적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Global Challenge 라는 사이트에서 실제 투자활동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현지 기업 방문 (Company Visit): 프랑스 현지 기업을 공장을 방문해 실무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어떻게 기업이 돌아가는지를 구경하였습니다. 방문했던 기업은 Decathlon 과 LVMH 였습니다.

Cost Driver: 원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관리회계 전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ABC, Traditional method, Variances 방법 등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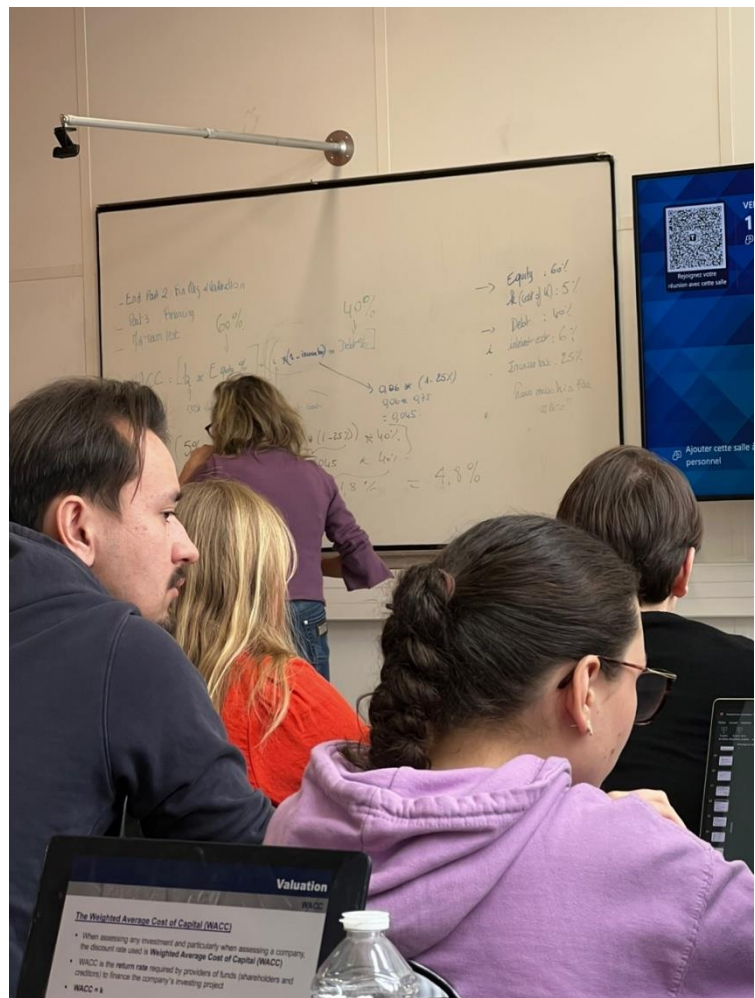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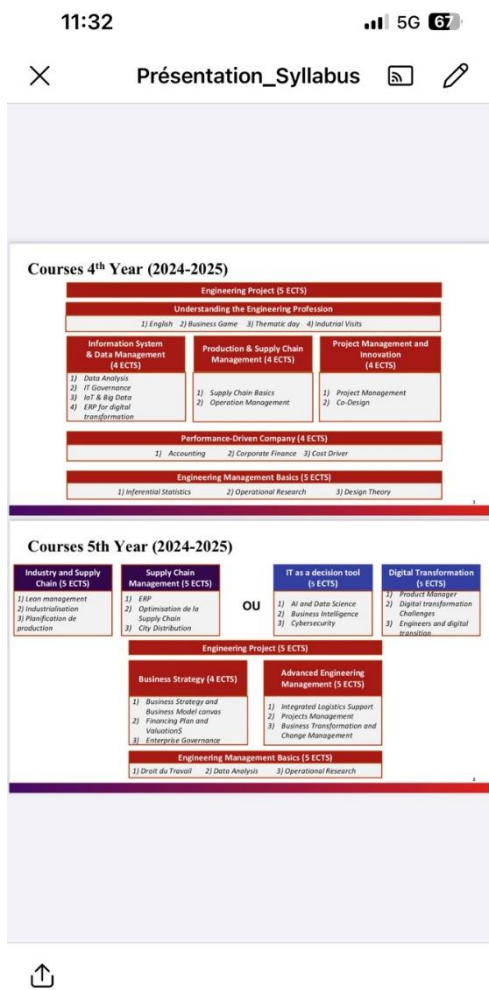
IT Governance: 기업의 IT 관리 체계, 리스크 통제,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배웠습니다.

Operation Management: 생산계획, 품질관리, 공정 설계 등 경영 공학의 핵심 개념을 다룬 수업이었습니다.

ERP for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ERP 시스템의 역할과 실제 도입 사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초반에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교수나 팀원들의 빠르고 프랑스식 억양이 강한 영어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업 경험은 전공 지식은 물론, 실무 적용 능력과 국제적인 협업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 프랑스 EPF Engineering School에서의 캠퍼스 생활은 학문적 경험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한국관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과 ESN 프로그램 참여가 교환학생으로서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및 캠퍼스 시설관련해서 우선 저는 파리 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내에 위치한 한국관(Korean House)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곳은 위치적으로 파리 시내에서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같은 한국관에 머무는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며 든든한 유학생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cite 바로앞에 PER B라인 지하철이 다니는데 이게 파리 시내도 분이면 가고 학교도 10분이면 가서 교통관련해서는 엄청 편했습니다.

학교 자체는 파리에서 살짝 아래에 위치한 Bagneux에 있었습니다.

캠퍼스는 소규모이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잘 관리된 분위기였다.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동 외에도 스터디룸, 휴게 공간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잘 갖춰져 있었으며, 특히 따뜻한 계절에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보다는 기숙사에 있는 Cité 내의 공용 도서관(La Bibliothèque de la Maison Internationale)을 이용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용한 분위기여서 공부하기에 훨씬 효율적이었다. 좌석도 많고, 프린트나 인터넷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Cité 내의 학생식당(caféteria)을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3~4유로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줘서, 교환학생 예산으로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되었고, 기본적으로 메인 요리, 사이드, 디저트, 음료까지 포함된 구성이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동아리 및 교내 활동 :

교내 활동 중에는 EPF 밴드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학교 수업 일정과 연습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자주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학생들과 함께 음악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학기 초에는 ESN-EPF(Erasmus Student Network - EPF 지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환영 행사 및 파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고, 파리 근교로의 소규모 문화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반 이후에는 ESN Paris의 더 큰 규모의 행사들에 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SN Paris는 파리 전역의 Erasmus 학생들을 위한 네트워크로, 파티, 시티투어, 테마 행사 등 매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행사로는 클럽 파티, 바 투어, 노래방 파티, 각국 음식 공유회 등이 있었는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유럽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4월 이후로는 시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외부 활동 참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정보 및 일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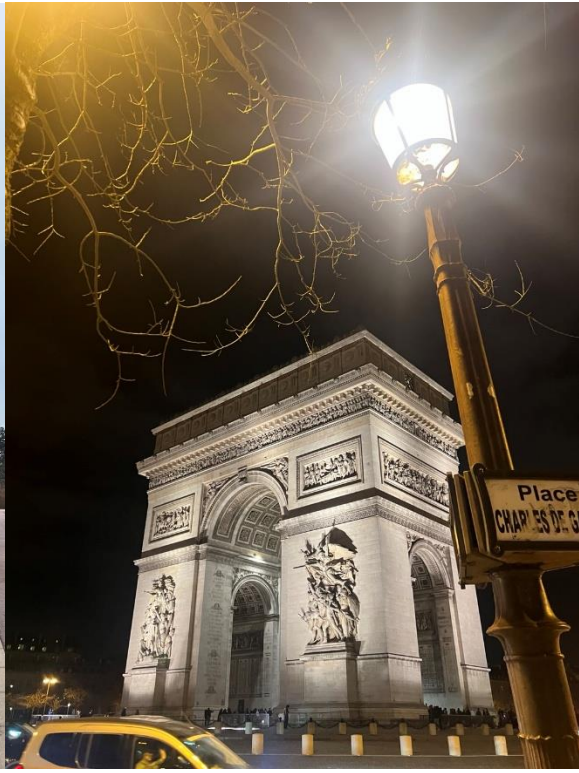
학교가 위치한 Bagneux 지역은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지역으로, 대형 쇼핑몰이나 변화가는 없지만, 지하철 역 앞에 위치한 작은 빵집이 인기가 많았고 종종 테이크아웃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주변에는 특별히 맛집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사는 기숙사 인근 학식에서 해결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해 먹는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쇼핑이 필요할 때는 RER을 타고 파리 중심부(예: Châtelet, Montparnasse, 또는 Galeries Lafayette)로 나가 다양한 쇼핑몰이나 마트를 이용했습니다. 프랑스 대형 마트인 Monoprix, Franprix, Carrefour 등을 자주 이용했고, 한국식품이 필요할 때는 13구에 위치한 한인 마트(K-Mart, Ace Mart 등)에 가곤 했습니다.

관광지로는 프랑스답게 다양한 볼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말이나 짧은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짧은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몽마르트 언덕, 세느강 유람선 투어 등은 교환학생 기간 동안 꼭 가보아야 할 명소들이었고, 프랑스 현지 학생들과 함께 방문하면 더 특별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원이나 숲에서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기며 유럽적인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EPF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단순한 학업 경험을 넘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스로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안팎의 경험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나에게 있어 큰 성장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 기숙사 종류는 파리 국제 대학촌 한국관 이였고 개인 룸 형식에 샤워실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공용 주방도 층마다 위치해 있어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세탁실, 헬스장, 휴식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음악실 등이 있어 편의 생활 측면에선 만족스러운 기숙사였습니다. 기숙사 요금은 제가 사용했던 1인실 같은 경우 월 690유로였습니다. 총 1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3795유로 정도 숙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한국관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 후 송금연수증은 한국관 이메일 direction@maisondelacoree.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입금계좌명, 날짜 등이 찍힌 화면 캡처 가능)

한국관 기숙사비는 매달 5일전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이미 4월분 기숙사비 납부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관 기숙사비 납부 안내]

1. 납부 방법- BNP Paribas 프랑스 한국관 계좌 송금 (첨부 파일 참조)

- 수취인: Fondation Maison de la Corée
- 주소: Maison de la Corée, 99 boulevard Jourdan, 75014 Paris, France

2. 송금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정보란에 반드시 **방번호/해당월**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또는 타인 송금시 **입사생의 영문성명/방번호/해당월**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시 발생하는 완전 및 송금수수료는 납부인 부담 (해외 송금 시 수수료 부담을 "our"로 선택)
- 기숙사비 자동납부는 본인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달 미만의 월세는 30일 기준 일함(日餉)계산됩니다.

1. (월세÷30) × 거주일수

예: 월세 690유로 기준

5월17일 퇴사 시 5월1일~5월17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17일치 금액 산출 방법: (690€ ÷ 30) × 17일 = 391유로 (1달=30일 기준)

※ **퇴사 예정인 경우, 퇴사 이전일의 기숙사비 원납 후 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보증금으로 대제 불가**

감사합니다.

한국관 드림

식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아침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앞 빵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였고(3유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cite에 있는 cafeteria에서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cite 내 식당은 평일과 토요일 아침만 운영하기에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은 요리해먹거나 기숙사에 있는 한식당에서(11유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대략 월 200~300유로 식비로 빠져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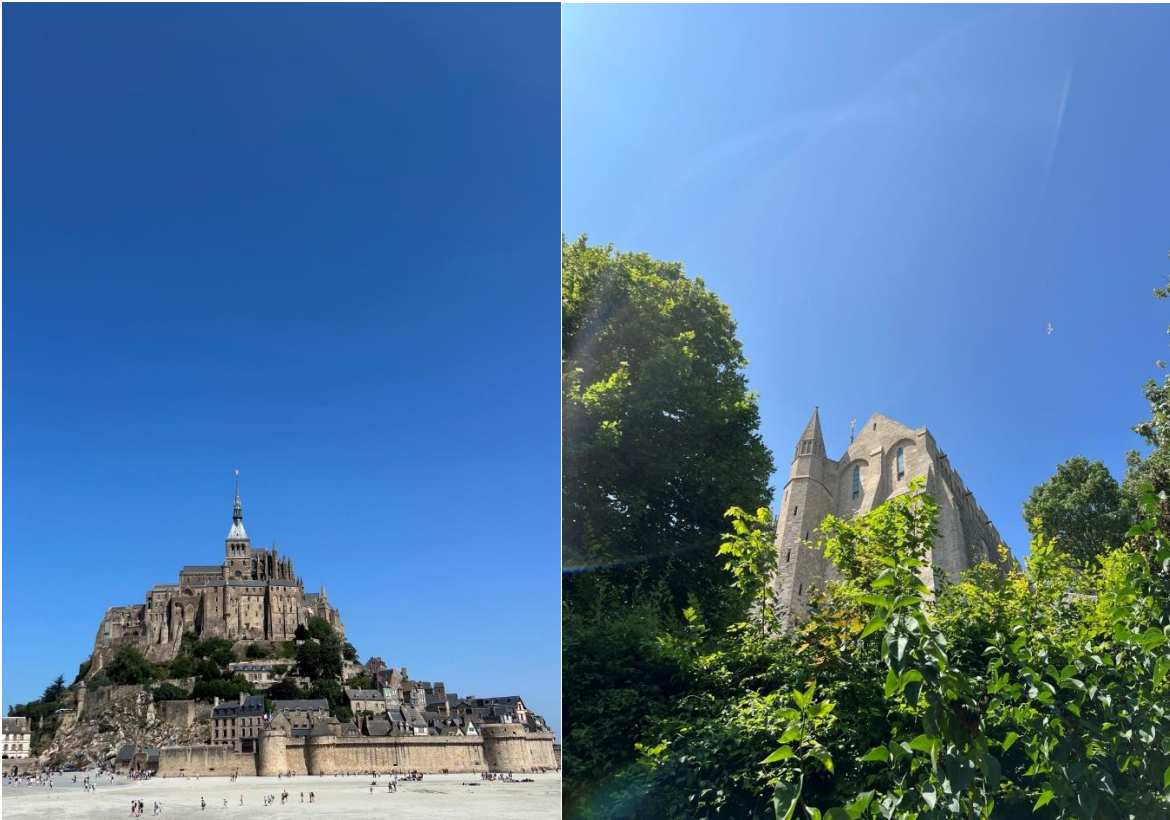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Forfait imagine R é tudiant 카드를 구입해 375유로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는 파리는 전 지역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있어 엄청 편리했습니다.

여행비로는 방학 때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갔는데 이때 대략 1000유로정도 지출하였습니다. 확실히 프랑스 내에서의 여행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로 비행기타고 여행가는 것은 비용이 꽤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간단하게 프랑스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고 크게 Mont Saint Michel 로 여행을 갈 때는 왕복 교통비 64유로와 식비까지 해서 대략 100유로 정도 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남쪽에 있는 니스로 여행을 갈 때 비행기 값과 숙소까지 해서 대략 500유로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여행을 갈 때는 미리미리 기차를 예약한다면 싼값에 갈수 있지만 저는 거의 1주일 전에 여행 계획이 생겨 여행 경비를 크게 절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1600~1800유로 정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개인 지출로는 기초적인 생필품에 소비하였습니다. 기존에 한국에서 넘어올 때 따로 짐 무게 추가를 하지 않았기에 모든 것들을 챙기기는 어려워 파리에 와서 챙기지 않은 생필품들을 구매하였습니다. 침구류, 샴푸, 바디워시, 세제, 주방 용품 등 기초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대략 200유로 정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6. 자기평가 (분량: 1~2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 프랑스 EPF Engineering School에서 보낸 교환학생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유학이나 외국어 연습 이상의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며 나의 시야를 넓혀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익숙한 언어, 문화, 시스템이 아닌 곳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식 영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했고, 팀 프로젝트 중 문화적 차이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수님의 설명 방식에 익숙해졌고, 팀원들과는 적극적

인 소통을 통해 협업의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파티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진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히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더 명확하게 그리기 위한 실험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 목표가 나에게 실제로 맞는 것인지, 내가 그런 환경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통해, 언어적인 한계를 느끼고, 문화적 차이를 마주하며, 행정 절차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내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루고, 어떤 상황에서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한 해외 체류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과정이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프랑스식 행정 절차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절차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적인 무언가를 신청하면 답변을 받고 처리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매일 해당 기관에 메일을 보내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문화적 외로움과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분명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초반엔 말 한마디로 통하는 국내 친구들과는 다른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한 방법은 ESN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결국 한국관에서 지내며 만난 한국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 ESN 행사에서 만난 외국 친구들과의 공감의 순간들이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고, 결국 이 경험은 혼자서도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학 연수 이상의 경험이었으며, 나를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이라는 짧고도 진한 여정은 제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은 파견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과 그 학점이 본교인 한림대에서 얼마나 인정되는가였습니다. 만약 학점이 부족하면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초과학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일단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따로 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